

'1차로 나들목' 광주 지산IC 개통 결국 연기

안전성 확보 미흡·동절기 감안... 내년 봄 이후에나 가능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 지산 나들목(IC) 개통(광주일보 7월 1일자 6면)이 내년 3월 전후로 연기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자락 지산 유원지 활성화와 시민 교통편의 등을 위해 오는 15일 지산 나들목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이 추가로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지산 IC는 우측 차로를 이용해 진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1차로를 통해 왼쪽으로 진출하도록 설계된 탓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이 제기돼 왔다.

지산 IC 개통은 국립공원 무등산과 지산유원지, 법원과 검찰 등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2018년 9월 공사가 착공됐다.

지산 IC는 70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총 길이 0.67km, 폭 6.5m로 개설했다.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맡았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이 차량 소음과 분진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광주시가 문제가 된 주택가를 피하기 위해 1차로 진출입로의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때 도로 맨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일반적 형태가 아닌, 중앙선 바로 옆 차선으로 진출입하도록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교통흐름과 완전히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광주시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 경찰·교통관련 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진·출입로 2km 앞부터 도로 바닥에 형광색 차선 표시 ▲단계별 속도제한(90→70→50km) 유도 ▲속도 측정 표지판·과속카메라 설치 ▲진·출입로 전에 위치한 지산터널 내 감속유도시설·터널 조명 개선·전광판 설치 ▲지산IC 진·출입로와 연결된 일반도로에 회전교차로 설치 ▲대시진 홍보 등의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를 앞두고 개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장치를 추가로 강화해 내년 봄 이후에나 개통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새롭게 바뀐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빙판길 등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큰 동절기에 개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시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뒤 내년 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새롭게 바뀐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빙판길 등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큰 동절기에 개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시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뒤 내년 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과 지산유원지, 법원과 검찰 등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추진된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IC)이 안전성 확보 부족을 이유로 개통이 2022년 봄으로 미뤄졌다. 사진은 8일 오후 지산 나들목 현장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위드코로나' 타고 한 잔 하셨네요

시행 일주일 간 광주 음주운전 전월비 2배 경추

광주·전남에서 시행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일주일 간 음주운전이 241건이 적발됐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 10월 같은 기간(1-7일) 적발된 음주운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는 점에서, 음주집영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241건(광주 114건·전남 127건)이 적발돼, 85건이 면허가 정지(열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됐고, 154건이 면허취소 수치(0.08%이상)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하루평균 34명 꼴로 적발된 것이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1월-10월까지 같은 기간(매달 7일까지) 평균 181.7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전남지역은 지난달에 비해 다소 감소(132건→127건)했지만,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10월(59건)보다 55건 늘었다.

광주지역에서는 일자별로는 ▲1일 17건 ▲2일 16건 ▲3일 9건 ▲4일 10건 ▲5일 17건 ▲6일 26건 ▲7일 19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 수준이 32건, 취소 수준은 80건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 '졸졸졸 도랑 생태이야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 서구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창동 개산마을 전평제 일원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졸졸졸 도랑 생태이야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림교육 분야 전문가와 서창동 마을해설사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아이들이 도랑 생태계를 통해 자연의 순환과정을 배우며,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전평제를 찾는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에게 서창동 개산마을의 역사를 들려주고, EM 흙공과 천연제품 만들기 등 환경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체험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신청은 협동조합 산림문화연구소(062-371-3379)를 통해 선착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후환경과(062-360-766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어린이집·가정양육 맞춤형 원스톱 지원 광주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주년

1주년 기념 문화공연 개최

광주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6일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주년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역 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 ▲가정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센터 내 실내놀이실은 연간 약 3000여명이 이용중에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지역 내 영·유아를 둔 30여 세대를 초청해 가족음악회와 인형극, 버블 체험, 요술공연 체험 등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이날 선보인 가족음악회와 인형극은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와 함께 자주 이용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버블놀이를 하고 있다.

도 많은 도움을 받아 왔듯이 앞으로 진행할 육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윤아 센터장은 "어린이가 성장하듯,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동구 센터가 육아지원 거점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구 관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 실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